

늘 성탄과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는 호스피스 봉사

이 동 익 신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료원장 신부



히포크라테스는 좋은 의 료란 때로 병을 치료하고, 자주 병을 완화시키며, 항상 환자를 위로한다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 한 수많은 논의들을 대하면서 의료 행위가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좋은 의료로부터 한참이나 멀어져 있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수많은 의료인 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삶의 마침으로 보기보다는, 의료의 실패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하다는 생각도 드니까요. 당연히 의료인들은 병든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여길 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대 하는 자세, 그것은 의료인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다만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동 시에 요구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의료인들 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 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2009년 한해의 마지막 달을 지내면서 또 다시 한 해 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다보고, 또한 주위의 고통 받는 사람 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며 살아왔는가를 성찰 해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로 둘러 쌓여있는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통을 대면해 왔는지도 요즘의 묵상 내용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고통 의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활동의 초점은 곧 환자에 게 다가온 죽음과 그 죽음에 따르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죽음은 언제나 죄로부터 따 라오는 형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 움이었고, 그러기에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언제나 멀리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멀리 있어야만 하는 죽음이 반드시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 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영광스럽게 부활 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 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 앙의 신비이며, 이 신비는 어쩌면 호스피스 봉사자 들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 한해 힘들었던 시간이었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더 많 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정 책적으로 많이 지원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 들이 만나는 환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늘 체 험할 수 있는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새해에도 늘 주님의 축복 속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12월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